

“불법파견 범죄, 재벌·대법원·정부가 공범”

금속노조 소탕단, 불법파견 철폐 외치고 미안파 민중·엘지 청소노동자 연대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 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 이 투쟁 옛새채인 4월 20일 서울에 도착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알리기에 집중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전국의 비정규직 투쟁을 연결하고, 코로나 19 시기 느슨해진 연대투쟁을 복원하기 위해 4월 12일 시작했다.

소탕단은 4월 20일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17년째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탕단은 “현대·기아자동차가 노동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 사용을 밀어붙이자 불법파견은 계열사, 부품사, 납품회사를 거쳐 전산업, 전 업종으로 퍼져나갔다” 라고 비판했다.

소탕단은 11시 30분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자리를 옮겼다. 소탕단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폐업 시 금속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 비조합원만 고용승계하는 방식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현대·기아차의 행태를 고발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장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해고당해 6년째 투쟁 중이다” 라면서, “다음 달 대리점 한 곳이 폐업 예정이다.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라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 자동차 판매연대지회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조합원들이 인근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의했다.

13시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도착한 소탕단은 포스코 자본에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을 이

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소탕단은 “포스코는 더는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 아니다” 라며 “노동탄압, 온실가스 배출 1위의 기후악당, 땅 짚고 헤엄치는 비리 경영, 불법파견, 인권유린, 미안파 군부와 이권 결탁” 등 나쁜 기업 종합 백화점이라며 포스코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탕단은 “2021년 2월 3일, 2월 8일 고등법원은 포스코의 대부분 공정과 소송을 벌인 하청노동자 262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라며 “불법파견 공정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장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기자회견에 앞서 소탕단 단장인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를 규정대로 해달라는 면담요청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에 들어갔다.

금속노동자들은 요구를 적은 펼침막을 들고 평화롭게 면담요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경비들이 거칠게 내쫓았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선고

기일을 반복 연기하며 재벌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거칠게 내쫓은 대법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탕단은 대법원 앞에서 판결 고의지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숙농성을 벌였다.

투쟁 이레째인 4월 21일 소탕단은 이른 아침 대법원 앞 출근선전을 시작해 미안마 무관부 앞 군부 규탄 기자회견과 서울 고용노동청 앞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지부 농성장 약식집회를 거쳐 여의도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소탕단은 이날 오전 10시 미안마 무관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안마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

는 쿠데타와 민중의 목숨을 건 투쟁은 이 땅에서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 부마항쟁,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중항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민중 학살 군부에 맞서 투쟁 중인 미안마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찾아 적극 연대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소탕단은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해고철폐투쟁 344일째, 단식투쟁 9일째인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지부 조합원들을 만났다. 김정남 아시아나 KO지부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길거리에 내몰려 고통을 받는 일이 없을 때까지 싸우겠다”라면서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다.

여의도에 도착한 소탕단은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탕단은 엘지 트윈타워로 이동해 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수개월째 거리에서 농성 중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연대 선전전과 문화제를 벌였다.

금속노조 소탕단과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이 함께 퇴근 선전전을 벌이던 중에 경찰이 감염병예방법을 핑계로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 오히려 경찰이 수십 명씩 떼지어 다니며 방역수칙을 어겼다.

“투쟁의 심장으로 노동자 가슴에 다시 살아” 금속노조 경남지부, 1 지회·1 열사 바로 알기 교육

“열사는 싸울 때도 가르쳐 주셨고, 하늘에서도 운동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솔밭산 열사묘역에 잠들어 있는 열사의 삶과 정신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되새기는 교육사업을 진행 중이다.

노조 경남지부는 3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열사 교육사업을 결의하고, 지부 열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 지회·1 열사 지정사업을 벌였다. 경남지부 소속 지회들은 지부 열사위,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 계승사업회(아래 부울경열사회)와

함께 ‘열사 바로 알기’ 확대간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9일에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확대간부들이 솔밭산을 찾았다. 솔밭산에 열사 원네분이 잠들어 있다.

부울경열사회는 “열사는 사회의 모순으로 타살됐거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동지들이다”라며 “열사의 죽음 후에 그 뜻을 계승하려는 많은 이들의 실천이 열사 정신 계승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사 교육 참가 조합원들

은 홍여표, 정경식 열사 등의 묘역을 찾아 열사의 삶과 정신을 나눴다. 솔밭산 열사묘역 교육은 대역섯 분의 열사묘역을 돌아보고, 마지막 순서로 비정규직 열사를 찾은 뒤 마무리한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솔밭산 열사 교육으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전·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비정규직 투쟁까지 노동역사를 읽을 수 있다”라며 “열사 바로 알기를 넘어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드는 교육이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통제 뚫고, 노동자 살리기 투쟁 조직”

산재처리 지연 노동부 규탄대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경고

금속노조가 노동자 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쟁취와 노동부 산재처리 지연 끝장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을 달을 맞아 4월 21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전면적용과 산재처리 지연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민주노총·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저녁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또 있을까 봐 겁이 난다”라며 “포스코처럼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자는 게 금속노조의 분명한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산재사업장 감독에 현장노동자



와 금속노조가 반드시 참여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시행하지도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본과 언론이 수작한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과 언론이 법을 시행하면 사업주들이 무조건 구속될 것처럼 왜곡 선동을 한다”라면서 “정부 시행령을 자본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난리 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4, 5, 6월 금속노조의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노동자 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쟁취와 늦장 산재처리 끝장내는 투쟁을 벌이겠다”라며 “코로나 19 핑계 집회·시위 제한을 뚫고 헌법이 부여한 가치대로 당당히 집회를 조직하며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했다.